

# 소상공인 대출이자 돌려 받는다...188만명 80만원씩

## 금융위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기업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오는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 은행권 5일부터...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자 300만원 한도

## 중소금융권 차주 40만명은 3월 말부터...별도 신청절차 필요

##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대상 확대...1.2% 비용 추가 절감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은행별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미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고,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탁,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기업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역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금리 구간이 '5.0~5.5%' 시 0.5%포인트(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 캐시백을 진행한다. '5.5~6.5%' 구간에 대해서는 5%와의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 구간에는 1.5%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를 돌려준다.

기본적으로 캐시 부담을 5% 수준 정도로는 맞추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기준일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 차액은 '8000만원×1%p(6%-5%)=80만원'으로 산정된다.

중소금융권은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권 캐시백 프로그램과 환급 규모나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오는 3월 29일부터 중소기업권 금융회사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회사가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은행권과 달리 소상공인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금융회사가 중진공에 차주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차주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자 환급액은 매분기 말일(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 지급되며,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 대상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작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한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기아, '형님' 제쳤다...시총 6위 등극

## 전날 증가 10만2900원 마감...현대차보다 시총 2천억 앞서

기아가 '형님' 회사인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지난 31일 기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 대비 5.0% 오른 10만2900원에 거래를 마치고 시가총액 상위 6위에 올랐다.

기아의 시가총액은 증가 기준으로 41조3703억원을 기록하며, 현대차의 41조1640억원 보다 약 2000억원 앞섰다.

기아는 이날 초까지만 해도 유가증권시장 시총 8위였으나,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차를 연이어 제치며 6위에 올라섰다.

기아가 현대자동차의 시총 규모를 넘어선 건 최근 내놓은 주주 환원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결산 배당금으로 각각 8400원, 5400원으로 책정했다. 현대차는 2·3분기 배당과 합치면 연간 배당금은 총 1만1400원이었으나 결산 배당만을 놓고 보면 배당률(증가 기준)은 기아가 5.4%, 현대차가 4.3%로 기아가 더 높다.

특히 올해는 먼저 배당금을 확인하고 나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정책 선진화 제도가 시행된 첫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1주당 배당금이 더 많은 기아를 선호할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주 관련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최근 실적 발표 직후, 오는 3월 중순까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아가 많은 양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만큼 주가 하락을 막아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기아는 하루 최대 약 57만주를 장내 매입해 5000억원 한도 내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 중 절반을 소각할 예정이다. 나머지 50%는 3분기 누계 기준 재무 목표를 달성하면 4분기 내 추가 소각한다.

반면 현대차는 이미 보유 중인 전체 지분 중 4% 가량의 자사주를 매년 1%씩 3년간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은행 "모 심고 금리 더 받으세요"

## 연 최대 4% 금리 '모(毛)내기 적금'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연 최대 4% 금리의 '모(毛)내기 적금'〈사진〉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모내기적금은 상품에 가입한 뒤 광주은행 Wa(와)뱅크 앱에서 계좌조회 내에 '모내기현황판' 화면을 터치하면 횟수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모심기는 1일 1회 가능하며, 모심기 횟수에 따라서 기본 금리(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3.5%)에 최대 연 0.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모심기 횟수가 10회 이상이면 연 0.1%p, 30회 이상은 연 0.3%p, 50회 이상일 시 연 0.5%p를 제공한다.

모내기적금은 광주 Wa(와)뱅크 앱과 모바일 웹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개인 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년제로 가입 가능하다.

이 외에도 만기해지 시 광주은행 개인신용카드 사용자 중 BC가맹점 중 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 업종에서는 사용금액의 0.2%, 이음원·미용원 업종은 사용금액의 0.1%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다만 개인신용카드 외 기업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무이자할부 포함금액, 승인취소 금액 등은 캐시백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모내기적금은 클릭만 해도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미요소를 가미한 상품일 뿐만 아니라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제공되는 신상품이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혜택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 스페인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 삼성전자는 오는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4'에서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을 전시 중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입구에 설치된 '더 월(The Wall)'과 투명 마이크로 LED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오늘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경공매지원센터 방문·전화 상담

법원, 세무서,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을 신청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한 곳에서 한꺼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중로 경공매지원센터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KB국민은행 특화 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금융지원이 무엇인지 상담받을 수 있다. 소송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지급명령 40만원·소송 1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집행권원 확보를 원한다면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지금까지 수수료의 7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설명회 개최

## 국민연금 광주본부 상무대 방문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근) 내 상무대 근인 아파트를 방문해 직업군인의 배우자 중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본부는 낮은 광주·전남 지역의 노후 연금 수준을 높이고자 설명회를 열고 노후 연금액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광주본부는 직업군인의 군인연금 수급요건인 20년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 권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과거 가입경력에 더해 15년 이상 가입 시 월 3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윤종선 본부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없는 배우자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도 임의가입을 통해 필요한 노후 연금을 만들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지역사회 주민분이 연금제도도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찾아가는 설명회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7.09(-1.72)
↓ 코스닥	799.24(-19.62)
↓ 금리(국고채 3년)	3.261(-0.007)
↑ 환율(USD)	1334.60(+5.20)